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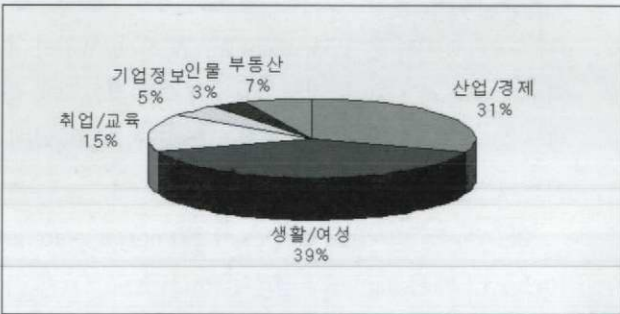
IP 창업 분야 '생활/여성' 선호

한국사능력개발원 부설기관인 I&CP 소호지원센터는 최근 200여명의 IP사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'IP 창업 계획'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. 이 설문에 따르면 소호창업을 꿈꾸는 예비 IP(Information Provider)들이 가장 선호하는 창업 분야는 '생활/여성'인 것으로 나타났다. <편집자>

한

국사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예비 IP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생활/여성을 비롯해 산업/경제, 취업/교육, 부동산 순서인 것으로 밝혀졌다.

또한 IP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는 아이디어를 꼽았으며 사이트 운영능력, 이벤트/홍보력, 자금 순으로 나타났다. IP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으로는 50% 이상이 100원에서 1천만원 정도의 자본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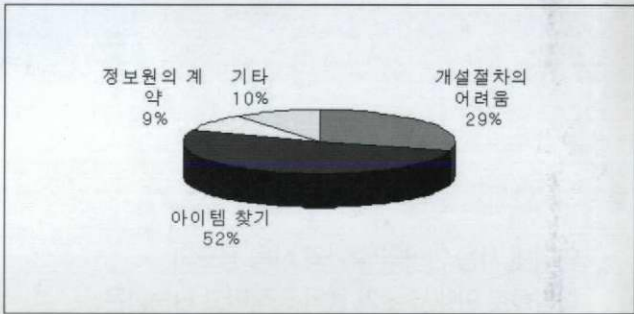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1〉 IP창업시 가장 관심있는 아이템

IP사업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PC통신 회사는 천리안, 나우누리, 유니텔, 하이텔, 넷츠고, 채널아이 순이었다. 아울러 PC통신 IP개설 담당자의 상담태도에 대해서는 12.9%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통신사 개설 담당자의 아이템 선별 능력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와 함께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IP지원 대책 16개항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%에 그쳐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그 실효성에 의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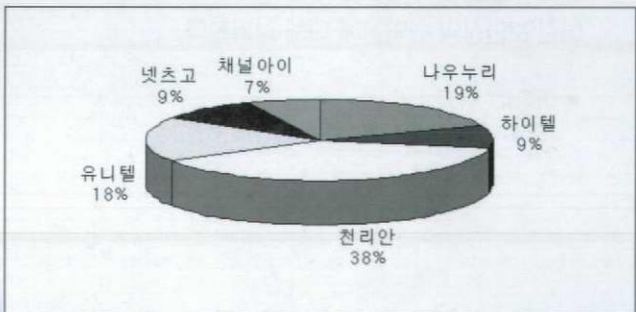
을 제기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

〈그림 2〉 IP창업시 가장 큰 문제점

한편 IP창업엔 강습이나 관련 세미나 형식의 교육보다는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 지도하고 상담해주는 컨설팅을 훨씬 선호했다.

또한 월 희망 수입액은 38%의 예비 IP들이 200-500만원을 예상하였으며, 50-100만원도 25%로 IP사업을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

〈그림 3〉 IP창업시 선호하는 통신사